

#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 반려동물 친화도시 본격화

### 중소형견, 대형견 구분 운영... 안전·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

### 2월 시범 운영 거쳐 3월 정식 개장, 반려동물 친화 정책 확대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NAJU PET PLAYGROUND)'를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는 금천면 원곡리 947번지 일원에 조성된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은 중소형견 전용 놀이터 약 1100평, 대형견 전용 놀이터 약 44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반려견 체형에 따라 공간을 구분해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맹견은 출입이 제한되고 QR 코드를 통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야간 이용은 제한되며 장마와 폭우,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장할 수 있다. 이용자는 반려견과 동반 입장해야 하며 입퇴장 시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및 배변 즉시 수거 등 기본적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식을 보완한 뒤,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반려견 놀이터는 나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1단계 인프라 사업으로 앞서 개회된 '2025 나주 영산강 명명파크 페스티벌'과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코스 홍보, 시민 참여형 체험 프

로그램 도입 등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해 명명파크 페스티벌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번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연계해 나주가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코스 홍보, 시민 참여형 체험 프



# 장성군, 인구 대전환 '승부수'

### '장성 원더랜드 조성' 등 체류형 관광, 미래 산업 집중

장성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인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인구 대전환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구·도시계획·교육·청년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6년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시행계획에는 장성군이 지난해 달성한 인구 1116명 증가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 4대 전략인 △모든 세대 활력 있는 삶터 조성 △청년들 품어주는 정주 환경 조성 △지역(로컬) 기반 미식관광 창업 여건(인프라) 구축 △친환경 미래산업 인구 성장에

따른 37개 세부사업에 646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300억 원 규모 '장성 원더랜드 조성사업'이 눈길을 끈다. 장성호 관광지에 어린이 복합 놀이공간, 이색 숙박단지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백양사를 중심으로 '케이(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미식 관광의 거점을 구축한다.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보건소 신축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산부 가사 돌봄을 지원하는 '맘(mom) 든든 케어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9일 고흥군청 우주출에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 회의'를 갖고, 처우개선수당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군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요

# 고흥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다

###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 지원 강화로 돌봄 서비스 안정화 추진

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군비 2억 88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 대상을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동일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우개선수당을 분기별로 9만 원씩 받게 된다.

공영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이번 처우개선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아울러 군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노인일자리 인력 2~3명을 배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해야 어르신들께 더 따뜻하고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군이 2~8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살피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판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290여 명을 검진해 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 내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 그 첫 사업으로 다음달 6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장기요양 판정자 41명에게 찾아가는 검진에는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 영암군, 2월 6일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

###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장기요양 판정자 등 290여 명 8월까지 검진

의 이동검진 차량이 함께 한다.

이 차량에 있는 진료 장비를 활용해 흉부 X선 검사, 실시간 영상 판독을 거쳐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현장 가래 검사를 추가 진행해 감염자를 최종 확인한다.

영암군은 이렇게 발견된 결핵 환자 또는 의사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올리고, 전염성 환자는 격리 조치, 철저한 복약 관리에 들어간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증

상자인 '추구 관리 대상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검진을 지속해 영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진도군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에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지역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안전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진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순 진도군 부군수

# 진도군, '주민 안전' 개선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안전한 진도 위해 진도군-경찰서-소방서 협업 체계 강화

를 비롯해 진도군 관련 부서장,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진도군은 사고가 잦은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안전 운동(캠페인) 확대, 맞춤형 안전교육, 교통환경 개선, 화재 예방시설 확충 등을 중

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순 진도군 부군수는 "진도군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 관, 경, 소방이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안전한 진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함평군 제안제도 대폭 개편... 창의행정 본격 추진

### '우수제안 채택 권고제-톡!톡! 제안데이' 신설... 상대평가 도입

전남 함평군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창의 행정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함평군은 30일 "2026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우수제안 채택 권고제 신설 ▲분기별 제안 의무 제출 도입 ▲상대평가 기반 시상제도 개편 등 조직 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군은 제안제도 활성화의 핵심과제로 '제안 채택률 제고'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우수제안 채택 권고제'를 도입했다. 6급 이하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제안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제안 안전'은 실무 검토 부서에 채택 권고 의견을 함께 전달해 더 적극적인 채택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 '톡!톡! 제안데이'도 새롭게 시행한다. 분기별로 첫 달 5일 이내에 각 부서에서 1건 이상의 제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최다 제출 부서에는 제안 1건당 부여되는 창의 마일리지 점수를 1.5배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제안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실질적인 혜택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70점 이상 시상)에서 벗어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상금은 1위 3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 4위(3명) 각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공직 내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동기 부여와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을 위한 실용적인 행정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